

에스겔7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마다 성령으로 항상 임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사 우리 마음이 깨끗한 옥토가 되어 우리 마음이 잘 세겨 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옵시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 목마른 사슴처럼 헤메이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찾지 못하고 헤메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함께 연합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이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네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경고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경고 경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서 알지 못하고 가고 있을 때 깨우쳐 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어 뭐 나는 교회 안가도 잘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원치 않지만 지옥에 간다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줘
야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되겠죠 미운 마음으로 주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믿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 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걸 모
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심판 속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대로 가면 죄인은 심판
받고 정죄 받고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20절 보니까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
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
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 이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피를 우리에게 찾는다 이건 구약
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하시는 말씀 이에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율법의 행위
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죄를 질 때 짐승
의 피를 가지고 잠깐 그 피를 대속하는 그래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잘 알아야 되요 성경을 잘 나눠서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눠서 공부
하지 않으면 헛갈립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구원론을 보게 되면 결국은 구원을 상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적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하늘로
못 올라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 하셨을 때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째 부활 이게 첫 번째 휴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적인 그러한 의인에 대해서 우리

미리 가서 18장20절을 보겠습니다

범죄한은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자기 자신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가 행한 의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물론 구약시대에 노아도 당대에 의인이라고 그랬고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에스겔은 다니엘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니엘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비록 그기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 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간신히 구원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의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의입니다 하늘의 의를 알지 못 하죠 혈과 육은 하늘에 못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 있음이라 구약시대의 의는 진정한 의인이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분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계속 죄를 짓고 짐승을 잡죠 그럴 때 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죄를 짓는 것을 그칠 수가 없구나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죄를 짓는구나 그래 옛날에 어떤 전도자가 어떤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다 죄죠 움직이면 죄만 짓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솔직한 심정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 교사다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몽학선생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 들어요 모르죠 지도교사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하는 선생이다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한 분 만이 하나님은 참 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도 한 분 만이 의로우시다 신약에서 누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가 의인

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죄인인데 너 의로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전가 됐다 그러죠 영어로 인퓨티드(Imputed) 됐다고 그래요 전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죄 때문에 돌아 가셔가지고 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를 받죠 땅에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오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요 아들을 내어 줘서 아들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자리에 우리가 사형 받을 자리에 아들을 대신 죄를 뒤 집어 씌워 가지고 대신 사형을 받게 했으니까 우리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사형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진짜 죽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사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 번 아들을 죽여서 그 한 번 우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지라도 너 지옥 가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세상에요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분의 죽으심은 내 죽음이요 그 분의 피 흘리심은 내 피 흘림이요 그 분의 무덤에 간 것은 내 무덤이요 그 분이 지옥 간 것이 내가 간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다시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요한 웨슬리 목사도 선교사로써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있다가 갔지만 구원 받지 못 했죠 그러나 본토에 돌아가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듣다가 거듭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 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 미친다 이거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구속이라는 건 대가를 치러준 겁니다 그의 피로 대가를 치러 줬죠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생명과를 따 먹어라 하신 것처럼 값없이 공짜로 무상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을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 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 하노라

참 얼마 나 얼마나 우리에게 반가운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을 때 받는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의로는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의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행한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뭐랬는가 하면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하박국 2:4)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의인이 되었으면 자기 행위가 나쁜 행위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한 번 사람 죽이면 착하게 산 행위는 무효가 되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자기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그리스도

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미 그 분의 피로 우리 죄 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죠 그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를 짓더라도 구원만큼은 상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값없이 줬잖아요 그런데 내 행위로 잃어버린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상을 잃어 버리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충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죠 물론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혼이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린 절대로 그 예수님이 죄를 짓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받은 의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요 왜 자꾸 잘못된 복음이 나오는가 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구원 받지 못 한 사람이예요 그 사람, 종교인인데 꼭 구원 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 버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에베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이 구원론이 잘 못 되면 모든 게 다 뺄어집니다 13절 14절 보면

그 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 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을 때 성령이 들어 가서가지고 그레 가지고 씰(seal)을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 주시고 완전히 봉 했어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14장에 보면 그 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거처를 정하신다 그래서 14절 보면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 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유업을 받습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 갈 수가 있죠 통치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보증으로 준 거예요 집을 살 때 청약금을 주면 집을 다 짓게 되면 rj기에 잔금만 지불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이 지불해 줬죠 그리고 보증으로 주님께서서는 청약금도 주셨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잔금까지도 다

치려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을 깨달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을 잘 모르면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정도만 이게 문제지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죠 제가 멕시코가면 마약 중독자들 알콜 중독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술 먹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서

그럴 때 이 사람 구원을 잃어 버렸다고 버려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히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때 간신히 몽땅 회개하고 구원 받죠 그러나 다시 오면 받아줘야 되요 보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6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6장 4절부터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 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환란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그렇죠 다시 타락하면 회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 못 해석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후서 히브리 야고보서 요한일삼서 요한계시록에 그 교리적인 부분은 바로 환란 때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도 구원 받는 거다 이걸 바로 그런 견지에서 보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구분해서 보지 못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 실수 했습니다 큰 실수 했습니다 간음을 했다 큰 실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영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그도 회개하면 받아드리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 하지 않으면 유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

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의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네 개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 하지 아니하고 죄를 향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율법시대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율법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요? 똑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 째가 유대인에게요 둘째가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은혜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 같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 아직도 그들 대부분이 율법도 모르고 있는데 율법도 지키지 못 하죠 짐승 잡아서 자기들 죄 지을 때 피 흘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란에 넘어 가서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나타날 때 깨닫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랬습니다 의인들에게 그 앞에 방해물을 놓는다 죄를 범하면 방해물을 놓아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이 요즘의 은혜시대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명해 본다면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 있죠 죄인들에게 여러 가지 방해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걸러 넘어지게 해요 걸러 넘어지게 해서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옛날 구약시대에는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냥 방해물을 놓아서 완전히 죽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무서웠는데 이게 환란 때도 그렇구요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되요 법이 다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 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6,7장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왕국의 헌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해물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방해물에 대해서 한 번 생각 해 보자구요 첫 째는 양심이 있죠 큰 죄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요 양심이 너무 찢리죠 조그만한 것은 안 찢릴지 몰라도

찢리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깊이 생각 하다가 전도자가 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해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 봤죠 어떤 사람이 타락해 가지고 술 중독자가 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가족들은 다 떠나고 거저 비참하게 혼자 있는데 어디선가 새벽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그런 소리듣기 힘들죠 시골에 가면 땡 땡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벽에 새벽 종 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막 들려오죠 그럴 때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뭐 교회 한 번 가 볼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그런 종도 못 치게 만들어요 못 듣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설교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되죠 어느날 죄인이 비참하게 있다가 저기 뒷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찢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런 소릴 듣다가 구원 받은 사람 있어요 간증을 들은 적 있어요 그런 소릴 들은 적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यो 그냥 절박하게 되면 하나님 맏소사 그런 사람있죠 요즘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그러더라구 나 좀 도와 달라고 다 불러 그냥 종교에 관계되는 인물들을 다 불러 신적인 존재들을

승들도 갑자기 무슨 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이 안 나오고 하나님 맏소사가 나오는데요 양심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

정말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할 줄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듣거던요 방해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기도 했죠 가족들이 기도해 가지고 그 기도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죄인들한테 방해물이 되어 가지고 거기 걸려 넘어져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기도 덕분에 구원 받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줬어요 그냥 쓱 주머니에 핸드

뺨에 집어 넣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퍼 봤어요 저는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올가(Olga)라는 멕시코 자매편데요 우리 집에 와 가지고 하루 밤 자면서 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핸드 뺨에 집어 넣었는데요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이려고 앉아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나 읽어 보자 그걸 읽다가 성령이 임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분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똥똥하구요 아주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는 여자예요 자기가 그래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분이 아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 가지고 멕시코로 내려 가가지고 마약 중독자 출신 리햐센타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로베르토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자 이렇게 전도지가 그렇게 방해물이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또 성경 이 성경책 말이에요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도 요즘 안 보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 갔어요 여러분 홀리데이인(Holiday Inn) 같은데 가죠 그러면 침대 머리 밑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킹제임스성경이에요 기드온에서 나온 거 참 감사 하죠 기드온에서 나온 킹제임스성경이에요 제가 브라질 가서 잠깐 떠나 올 때 모텔에 묵었는데 거기에 성경이 있는데 보니까 뿔뚜기스 성경이 있어요 브라질 사람이 쓰는 뿔뚜기스와 영어 킹제임스성경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지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나 읽어보자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탁 나온단 말이 예요 그래 가지고 성경이 역사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려다가 성경이나 한 번 읽어보자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 있죠 자 이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그 사람들이 뭔가 뭉클 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수라는 영화를 볼 때 그 분이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이걸 넘치고 넘치고 넘쳐도 십자가 사건 거기에 딱 걸려서 마지막 경고를 그냥 스쳐가지 못 하고 구원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 하시려고 옛날 구약시대에는 의인이 범죄 하면 그에게 방해물을 놓게 해서 걸려 죽게 했지만 그렇게 무섭게 해서 너희가 죄인이다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막상 예수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주님이 이미 세상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도 넘어지게 하고 저렇게도 넘어지게 하고 방해물을 놓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수중에서 건져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공부할 때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 받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요 한국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다면 우리는 유대인들 보다 더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을 봐도 뭐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바벨론의 70년 히틀러 치하에서 죽고 지금까지도 멸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얘기 했지만 예레미야에게 그랬죠 내 말이 불갈지 아니 하나? 불을 받았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타죠 망치같이 아니 하나?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여러분, 칼같이 아니 하나? 막 찌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했으면 율법의 죄로부터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율법의 선생처럼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 바리새인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동족들이 구원 받지 못 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받은 고통을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가 구원을

잃어 버려도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러므로 구약을 공부할 때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감사하고 한 마디도 불평할 수 없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달지 못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며 근심하며 걱정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먹을 때 말씀을 다 먹을 때 꿀 같다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꿀처럼 또 꿀 송이처럼 벌집처럼 달아서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그 감사하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